

문화재 환수, 현대판 의병운동의 승리

문화재환수위, 노다 요시히코 日 총리 의제반환 환영

“현대판 의병운동의 승리입니다. 이번 반환을 계기로 약탈문화재환수운동을 국민과 민족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와 문화재제자리찾기가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한과 함께 직접 반환한 《대례의궤(大禮儀軌)》 등에 대한 입장을 10월 19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조선왕실의 궤 반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환수 운동을 펼쳐나 가겠다고 밝혔다.

의제환수위 사무처장 혜문 스님은 “정부가 포기한 문화재를 불교계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양국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이번 반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 세계 문화재 환수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문화재반환청구권을 포기해 일본에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요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환수위원회는 5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이 이끌어 냈다. 반환이 결정된 도서들은 12월 10일까지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번에 직접 반환한 책은 《대례의궤》를 비롯해 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순종의 왕제사 시절 결혼식 과정을 담은 《왕제사가례도감의궤》 등 5권이다. 《대례의궤》는 ‘대환’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도서이며 자주 독립 국으로서의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수위와 문화재제자리찾기는 11월 12~13일 경복궁에서 조선왕실의궤 환수의 의미를 담은 국민환영행사과 오대산 사고지에서의 고유재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와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이번 의제반환을 “현대판 의병운동의 승리”라고 말했다.

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를 통해 조선왕실의궤환수의 기쁨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약탈과 문화주권을 주제로 전국 순회공연과 국외 반출 문화재의 정보를 담은 2012년 달력 제작·배포하고, 반출문화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국민들이 쉽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환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수위는 또 제2기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강화한다. 국회에서도 ‘국외약탈문화재환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돼 환수위의 활동을 지원한다. 김의정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대표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도 문화재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계승·보급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정부 노력 소극적이다

혜문 스님, 정부 태도 지적
반환 의제 저평가 반박해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처장 혜문 스님(사진)은 조선왕실의궤 환수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관심한 태도를 지적했다.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문화재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가 방한과 함께 반환한 도서 중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규장각에서 대출한 뒤 반환하지 않은 도서들이 포함돼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이라며 66종 938권을 대출했다.

혜문 스님과 환수위는 2006년부터 규장각과 문화재청에 대출 도서의 반환을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

이었다.

혜문 스님은 “대출 도서가 반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정부는 궁내청에 보관되지 않은 도서들에 대해서는 일본에 반환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혜문 스님은 반환되는 조선왕실의궤가 어람용이었던 외교장관의 궤와 달리 분상용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낮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환되는 의궤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이런 평가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반환은 경술국치 100년의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일본 정치의 가장 큰 상징인 궁내청



에 보관됐던 책이 돌아온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분명한 승리의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혜충 스님, 마지막까지 불교사랑

퇴임을 앞둔 포교원장 혜충 스님이 10월 17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을 통해 군법당 및 승려노후복지기금 2000만원과 승가교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을 지내시는 동안 많은 기금과 후원을 하시더니, 마지막까지 불교발전 위한 아낌없는 모습에 감사 드린다”

고 말했다.

혜충 스님은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실천을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 총무원장 스님 덕분에 나도 포교원을 잘 이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자성과 쇄신의 동행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혜충 스님이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법당 및 승려노후복지기금, 승가교육진흥기금 등 3000만원을 전달했다.

포교원, 모범 불자 교도관 표창... 교정교화 본격 지원

모범수용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만원도 지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교화시설에서 포교활동을 펼치는 모범 불자 교도관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혜충 스님은 10월 17일 포교원장 직무수행에서 의정부 교도소(지도법사 지일) 김영찬 교위와 서울남부구치소(지도법사 법은) 김희중 책임관에게 상장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영찬 교위는 3년간 의정부 교도소 교정교화 불교담당 주임을 맡으며 재소자 소양 교육 및 불자양성에 힘을 쏟았다. 김희중 책임관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상담 등 위기 수용자를 관리하고 직원들 자를 중심으로 신명회를 조직해 정기적인 신명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혜충 스님은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교도소들에게 모범도 전국에 있는 불자 교도관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할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물질 지원은 포교활동의 단초가 돼 교정교화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영찬 교위, 현강 스님, 혜충 스님, 포교국장 남전 스님, 김희중 책임관

포교원은 이날 모범수용자의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학금 500만원을 원주교도소(지도법사 해원)와 성동구치소(지도법사 분공)에 전달했다.

교정교화 전법담당 현강 스님은 “교도소 포교활동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 재소자들은 단순한 실수로 구금이 되면 경제적으로 가정을 지속할 수 없어 정신·신체적으로 힘들어 한다. 이럴 때 포교원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전달식이 교정교화 포교발전에 초석을 이뤘

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지난 1월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을 출범했다. 포교원은 그동안 춘천교도소, 영등포교도소 등 8개 교도소에 불교도서 340권을 지원했다.

또한 불교 수계법회 시 수용자들에게 통일된 수계복을 입고 진행할 수 있도록 수계복장 250벌을 각 교도소에 제공했으며 모범수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들에게 지난 7월 춘천교도소에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미래 불교 재가자 손에 달렸다”

불교 총지종 창종 40주년... 통리원장 지성 정사

“기지를 끈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 마련했습니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 정사·사진)이 창종 40주년을 맞아 총지종 교도들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음악예술제를 연다.

통리원장 지성 정사는 10월 17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교계 기자 간담회를 열고 29일 오후 2시 여의도 KBS 홀에서 사회화합을 위한 통일음악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성 정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총지종은 창종 당시 생활불교를 표방하며 불교 실천에 역점을 뒀다. 40년을 맞아 총지종이 기지를 켜고 사회화적 활동을 하기 위한 도약의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성 정사는 “총지종은 창종 이후 ‘나라의 안녕과 조국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공공서원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올려왔

다”며 “이 일환으로 담보 상태의 남북관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문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불교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생활불교, 재가불교를 표방하는 총지종은 대중과 함께 하고자 도심 공연장에서 공연을 연다.

지성 정사는 “기존의 불교 행사가 산사에서 이루어진 공연위주의 행사였다면 총지종은 이를 과감히 탈피해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총지종은 이에 앞서 10월 27~29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 경희대에서 ‘제5회 국제 재가 불교지도자대회’도 개최한다.

지성 정사는 “2007년부터 세계 20여 개국 50여 학자와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창종 4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



졌다”며 “세계여성불자협회 회장 크리스티나 장과 진 리브스 중국 북경 인민대 석좌 교수 등이 참가해 재가불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지성 정사는 또 “오늘날 많은 재가불자들이 다양한 신행과 사회의 역할 분담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미래는 재가불자의 손에 달렸다”며 “이번 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가불자 성장의 의미를 상호 이해하고 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천하대도 모든종교의 최 고수가 되어 에델과학 천지공사로 자신의 생명인 운전수가 들어다니는 현관을 찾아 즉시견성도통 득도하는 마음에 성품인 부처되는 대법회

● 모든 종교로 열방정진 최정진 참선정진 수행으로 성불했다하더라도 담원건교, 보탑건교, 선정건교, 투쟁건교, 해탈건교의 정진수행으로는 넘지 못하여 견성성불을 하고 선정에 들어간대도 마법의 장난에 귀신놀음에 지고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화두인 (시승)이 이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대도는 즉시 부처가 되는 마음을 보는 것이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 생명에 가진 수행자들이 시승 견성성불의 핵심은 생명이 해이기를 내종교 내종교에 싸우고 옳고 그르고 애고지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운전수인 즉 마음을 찾지 못하고 사람은 자기집에 있는 현관으로 들어 다니면서 자신의 운전수가 들어다니는 현관문인 마음의 문을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도중 화홍신선님으로부터 사사하셨으며 생도태를 전수 득도 하시고 생도태 핵심인 생로병사 공의 심매에 들어가 마구니들의 장난을 항복 받으신 공의 고 집 진 도의 핵심의 고는 중생을 괴롭히는 자 누구나 집은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는 제도해 야한다. 이 제도법은 천장지비에 감취진 60일에 한번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경신수행일에 제도되는 것이다. 도의 근본은 생명이며 마음이며 마음의 생명은 누가 제도 하느냐 그것은 빛이 관리하여 빛은 대량이 관리하는 것이다. 부처님 열반 후 500세 동안에서는 방편불교로 고 집 열 도의 반야심경이었으나 이제는 에델과학시대가 도래되고 생중시에 고행으로 부처님께서경강경 찾아가 행을 보이신 에델과학인 결식을 하여 제자들과 천이백오십인을 먹이시고 예수님도 보리며 세계로 오현행은 먹이신 핵심인 것이다. 불교는 종교와 과학을 넘어 신지적인 마음찾아 부처가 되는 것이고 누구나 경신수행으로 오홍은 천안동, 천안동, 타성동, 신숙동, 숙명동은 할 수 있으나 부처님 육신통만은 제법달다름에 천성도통과 성불은 겨우짜가 들어가는 문에 비유하시고 부처님을 하지 않은 자는 내 재자가 아니니라.

● 참선정진 독경 화두 견성 수행자들이 귀신마교와 인마 수마, 병마, 색마의 지고 자신의 일신 성불 못하는 것은 입장에 가리어 현관에 빛을 모르기에 수행부족으로 주저 않고 기도 수행중 서출동휴수를 혈분과 DNA인 지장수를 하루에 천CC이상을 운모단과 연부단을 복용하여 수행하여 팔백이 성이나는 금단체로 몸을 만들어 그 어떠한 귀신도 진태인 도깨비망망이도 마정도 마정도 이길수 있는 마음장생법인 어떠한 부처를 천마신공 육신통이 부처님으로 정진의 세계 신선의 세계 육신 세계인 신선이 하나되는 진법이 영보장정 일신성불로 불림무자 견성성불은 법안달 마 요법수행인 것이고 마음을 보아 부처가 되어 처처불이요 사물법정이라 일만이면 조경불이요 12인연이나 인연의 근본은 마음상자이고 마음상자는 팔만사찰 귀 남경의 핵심이며 반야심경의 근본이고 반야심경은 여러후 모든 경전과 말과 글과 문자를 2,500년 동안에는 방편불교로 범소유상 개시하람의 고집열도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고집진도의 본분불교시대가 되어 지계수복자에 의하여 금강경 진법 사구게 이제는 본분불교 우담바라의 달마요법 불품인 마음을 찾아 생명의 문을 여는 금강경 사구게 수목보명 수산정미요 산다천지 진민봉이요 천영화상 증축천이요 정결총락 도정명이다. 이 진법 사구게는 지계수복자에 의하여 성도하오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경신화두정진 수행으로 지구촌 모든 종교가 하나되는 핵심의 근본은 생명이요 빛이요 태양의 빛이 현관문으로 들어가기에 생명이 들어가는 곳이 현관인므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다. 고집진도를 가지고 나오는 자 이중선언이며 생경 신자니라. 참선 화두 정진은 견성한 자들이 독불이 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27대 반야바라 함자님들께서 에델과학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모두 마음지리를 보지 못하고 생로병사 공 고집열도 사만다사구게 사제제 성계를 관장하는 사자인 주인 공을 찾지 못하고 방편불교인 말과 글과 염불 독경 주력 고행정진 참선화두 수행인들이 이었고는 세진보살과 우수보살이 소승 대승으로 불성에 의지하여 불법과

마음의 근본을 말할수인 이유인 것이다. 심자의 핵심은 심 일만이천 도통군자 사명사 인류수승의 자리이고요 12인연이며 생명으로 마음으로 이어지는 선성의 사성성의 악성의 악성의 의식의 환상의 괴멸되어야 루진법계인 전생 금성 내성으로 이어지는 마음이 보이며 후에 라카야인이 누진통을 하는 것이다. 7식 8식 9식 10식 11식 12식은 수행인의 화두로 찾을 것이고 12법정의식은 부처님께서 도판에 화홍신선님께 사사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 일제마침을 항복 받은 진법이 태양이 빛이며 생명이란 것이다.

● 법왕달마요법 본분 불교로 마음을 열고 즉시 성불하는 최정진 정진이 신묘년 양력 10월 31일 밤 9시와 11월 1일 9시에 들어 천지공사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는 핵심은 모든 종교에서 내물은 비법인이다.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지 사는 곳이 생사이며 성품이니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는 것은 생명이 현관에 있기에 하나로 되는 것이다. 道法에서는 생중시, 불교 - 불이로 정법안정, 도교는 황정, 주역은 정이거체, 명덕은 군자시중 대학은 지지이유정, 자는 체와중중, 노이는 조석도석사기위, 자공은 성, 신광은 일지기어이로, 팔괘는 리공구자, 오행-중정정위, 자자-중야자, 오본도인은 사람은 성품, 선불은 반전복지, 역경은 무극논정정정위 일로, 율론은 천이문, 천문은 일서, 존시는 일신, 부모미생전은 일성문, 유교는 결성불로, 도교는 반본원원, 불교는 본문시 성품이 죽이다. 카를름은 거준원, 기독교에서는 성경, 주산은 서천의 불조, 단시는 일관진전, 학용은 행중좌와, 여초는 인소, 유가는 이, 도가는 일신유의 도성유, 의는 작이고, 심은 신이고, 성은 군이므로, 불교는 공이요 유교는 성리이며 도교는 윤리제성이니 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는 근본이 현관으로 시작되 나니 종교의 자성지리가 마음이고 본래면목이므로 모든 종교가 돌아가니 유불선종교가 천지공사 본질으로 하나되어 대일래로 창조주인 생명의 빛으로 하나되는 천지공사인 것이다. 지구촌 천지 개혁을 이끌어갈 이시대의 선구자들이여 일만이 천 사명자 도통군자 인류수승의 마음을 열어 견성도통하여 천지공사 만들수 있는 반출래총체 특별 도통명 강의를 하오나 동참하시어 일만이천 도인대법에 입문하여 중생들 모든 종교의 중생을 구원하시라.

● 입제 : 양력 2011년 10월 31일(음 10월 5일 월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 11월 1일(음 10월 6일 화요일)(해시)
● 상담전화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락대일 (선학순 접수) 간편한 웃
전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하차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물목 건너 약사회 골목 우측

서울부산동시범회 : 부산직할시 금정구 정전3동 경문사 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박홍래 총재 천지공사용조법왕달마경신도통회 신행세계불교달마중증본산환성.태일 대시협창

아파트 특보 복지원

개요 :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아래의 기업과,재단,사단법인은 사업 이윤을 사부대중과 사회에 기부하여 자리아타를 실천한다.

주제 : 1.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주택(아파트)을 저가로 제공한다.
2. 노스님들과 노인대중을 위해 복지후생을 실천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평당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750세대)을 서민에게저가로 공급한다(평당600만원선)

2. 사업 계획 : 서방정토극락세계구원
토지 3000평 허가득 봉황산골짜락 서남향 노스님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복지원을 건립한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보재단(가칭)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창
사업시행자 : 동 보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문 의 처 : 031)941-0000 / 010-7677-7556